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2. 25. / (총 1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주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팀 장 담 당 자	이 중 규 심 은 혜	전 화	044-202-2730 044-202-2732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 장 담 당 자	김 영 민 박 철 영	전 화	044-201-6920 044-201-693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이 채 은 강 승 희	전 화	044-201-7340 044-201-735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 장 연 구 관	홍 정 익 방 은 옥	전 화	044-202-2860 044-202-28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방역 상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 병동 실태 점검 ▲대국민 행동 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경북 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 3월 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입원환자를 전원(轉院)하여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이다.
-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를 위해 2월 20일 공중보건 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 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 검사 물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하여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월 21일, 23일)하여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2일 의사 1명, 2월 24일 공중보건 의사 4명을 지원하였다.

2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도들과 전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 교회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교회 측은 올해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도 명단이 확보되면 전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를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17일),
 -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14일).
-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2.19일),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4~6월 → 7~9월)하기로 했다.
-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 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 * (일반격리) 38천 원 ~ 49천 원, (음압격리) 126천 원 ~ 164천 원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은 2월 24일(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 정신병동 폐쇄 병동 실태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2.24일~2.25일) 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 지난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 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6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

-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202-3247, kymrs1031@korea.kr

7 대국민 행동 수칙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 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 예방 수칙도 개정 배포한다.

- 일반 국민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중단

-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 대상

- 공공2부제는 2019년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9 일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일).

10 '자가관리 앱' 사용 현황

- 2월 24일(0시 기준 누적치) 기준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여 명이며 이 중 84%가 자가관리 앱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한 경우 90% 정도가 응답하고 있으며,
-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금까지 416명,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통화하여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87명이며,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 2월 24일 특별입국자 관리 현황 (0시 기준 누적치)>

특별입국자 수	앱 설치율	응답률	유증상자 통보 수	검사자 수
58,969	83.9%	89.4%	416건	87명*

* 유증상자 통보자 중 의사환자 87명에 대해 검사 실시하여 83명 음성, 4명 검사 중

-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보를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증상 여부를 앱 설치자는 앱을 통해,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사후 관리 중이다.
-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발송,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하여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등 후속 관리 중이다.

-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6.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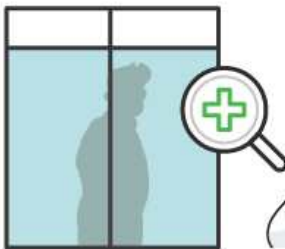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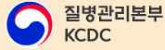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붙임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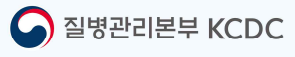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붙임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붙임6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 손가락
-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옷 소매로 가리기
-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